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다. 역으로 현재의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것도 과거의 시각에서는 옳을 수가 있다. 기업경영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다. 주식회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그 책임은 기업의 소유주가 져야 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소유주는 '출자한 범위 내에서' 만 손해를 보면 됐다. 이후 도전적이고 활발한 경영활동이 일어났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주주가 개인 재산을 담보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

맨해튼의 뒷골목이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 되기까지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도 이처럼 유한책임제도가 도입된 다음부터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분야의 역사를 익힌다. 건축학의 대가는 인류 최초의 건축물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수천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바로 과거와 현재를 통달하면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치고 주식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장이 좋으면 재미들은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주식에 뛰어들다. 물론 주식의 역사 따위는 관심이 없다. 알아봐야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제대로 된 주식투자를 하려면 금융시장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식시장의 흥망성쇠는 끊임없이 반복한다. 마치 역사가 반복을 거듭하면서 발전하듯이 말이다. 역사를 배워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처럼 주식투자도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면 해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 칼럼니스트 존 스틸 고든의 《월스트리트 제국》(참술)은 의미가 있는 책이다.

월스트리트가 금융의 중심지라는 사실은 알지만,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월스트리트는 금과 은, 조가비나 염주알 같은 것이 화폐로 쓰이던 1600년대 중반에 생겼다.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언과 영국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던 담장(wall)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런 작은 사실 하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어쨌든 월스트리트는 뉴욕의 별볼일없는 작은 뒷골목이었다. 이 곳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됐을까?

월스트리트의 빛과 그늘 조명해

이 책은 35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 질문에 답한다. 지은이는 월스트리트를 움직인 세력을 선과 악으로 구분한다. 선의 자리에는 알렉산더 해밀턴, 코넬리어스 반더빌트, J. P. 모건, 찰스 메릴, 앨런 그린스펀 등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던 성실한 금융인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반대편에는 낯선 이름이기는 하지만, 한때 부와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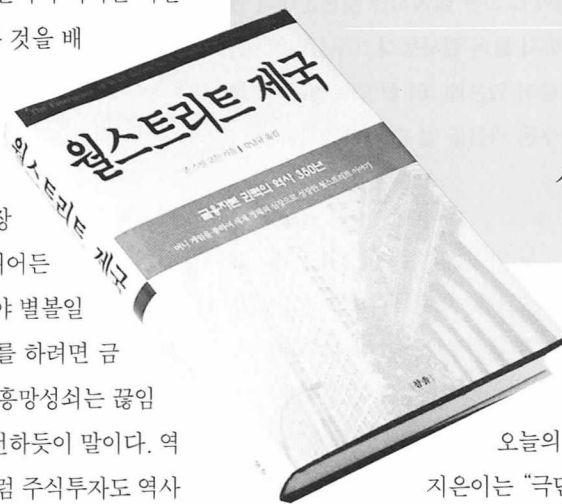
이 책은 현재 세계경제를 위락파락하고 있는 월스트리트의 350년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통사다. 어떻게 별볼일없는 맨해튼의 작은 뒷골목이 하나의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뉴욕이 어떻게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는지 흥미진진하게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월스트리트 제국'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따져보는 것도 이 책의 주요 테마다.

책갈피 산책

《월스트리트 제국》

세계 최대 금융권력의 350년 비사

존 스틸 고든 지음 | 강남규 옮김
참술/A6신/448면/28,000원



신현암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않고 이웃도 해칠 수 있었던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서있다. 이들이 두 축을 형성하면서 오늘의 월스트리트를 만들어온 것이다.

지은이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을 칠 때면 어김없이 거품과 몰락이 발생했고, 그 반작용으로 개혁을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시장’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되풀이됐다”고 말하면서 두 가지 실례를 든다. 1920년대 거품이 1929년 대공황으로 연결된 것이 첫번째 사건이고, 1980년대 이후 규제 완화와 인터넷 버블이 결합했다가 오늘날 파국을 맞이한 것이 두번째 사건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책을 읽노라면 지은이의 주장에 설득당하는 면도 있다. 역사에 기반한 대부분의 책이 그렇듯이 책도 초반부는 지리하다. 그렇지만 그 초반부의 지리함을 참고 견디면 어느 틈엔가 책의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무언가 월스트리트를 보는 해안이 생긴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말이다.

이 책은 굳이 금융전문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 읽어볼 만하다. 수많은 금융관련 사건을 읽으면서 어찌면 오늘날의 상황과 똑같은지 놀라게 된다. 우리의 미래도 책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느낌도 든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

신현암씨는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1초를 잡아라> <IMF 충격 이후> <브렌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인인? 원원!> 등을 펴냈다.